

목어 가족, 그리고 눈물



요즘 '올어보겠다'고 보러가는 영화가 있다. 산촌, 쓰러져 가는 너와집에 혼자 사는 꼬부랑 할머니와 서양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져 있는, 도시에서 온 젊은 외손자와의 동거 이야기, '집으로...'라는 영화다.

눈물은 주로 할머니 때문에 흘리게 된다. 왜일까. 혼자 사는 꼬부랑 할머니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연민의 정을 불러 일으킨다. 하지만 눈물은 그 때문에 흘리게 되는 것이 아니다.

연전에 한국에서도 개봉된 적이 있는 일본 영화 '나라야 마 부시코'의 주인공 할머니도 관객들의 눈물을 꽤나 흘리게 했다. 비록 스토리는 전혀 다름이지만 두 영화가 사람들을 울리는 대목은 비슷하다. 다음 아들 할머니들의 '조건 없는 내리 사랑'이다. 가족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다가 그 가족의 '먹는 입' 하나 줄이기 위해 스스로 고령자를 택하는 '나라야마...'의 할머니나, 장터에서 외손자위해 돈 쓰느라 버스 탑 돈이 모자랐던지 손자만 태워 보내고 먼 길을 혼자 걸어 집으로 돌아오는 '집으로...'의 할머니 모습이란...

이런 모습으로 해서 울리게 되는 눈물은 사람들의 감성을 순화시키고 가족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가족만일까. 세상은 그런 울음들로 하여 정화될 것이며 '내리 사랑' 뿐 아니라 전방위의 모든 '조건 없는 사랑'들이 그런 울음을 자극해 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눈물을 영화를 보면서나 흘린다. 일상에서 그런 눈물을 기대하기는 심히 어렵다.

하긴, 가족에 얽힌 사연들은 미담도 환상도 아닌 각박한 현실일 뿐이다. '가족주의는 파시즘적인 집단주의로 야만'이라는 주장이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지고, 에이지즘(Ageism) 즉 연령차별이란 단어가 세대를 나누고 있다. 에이지즘은 고령자에 대한 편견과 부당한 차별대우에 항거한다. 당연한 주장들이다. 그렇게 해서 가정이 해체, 붕괴되고 있다는 데 가족 이기주의는 그렇게 성해가는 것일까.

감동의 눈물이 드문 우리를 가지는 지금 진화하고 있는 것일까. 황폐화되고 있는 것일까.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김정자(언론인·본지 논설위원)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는 정치적 사건이 진행되고 있음을 목격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은 비단 나만의 경우는 아닐 것이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대세론이 그 시작부터 빛나갔던 것이 다.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의 위력을 꼽는다. 소위 일간지 시장

불자 세상보기



정호영
홍익대 교수
철학과

과정을 두고 하는 말이다. 늘 현장에 있으면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정치 감각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던 신문·방송의 기자들도 미처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이른바

을 독과점하고 있는 조선·중앙·동아일보도 인터넷의 힘 앞에서는 맥을 못쓰고 있는 형勢이다.

인터넷 신문인 오마이뉴스의 하루 접속자가 작년 7월 12일의 경우 50만에 육박했다고 하니, 지금은 그리고 다 훨씬 많은 것이다. 그리고 그 독자들이 그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더욱 확산시키는 것을 감안하면 인터넷의 위력은 통상적인 상상을 초월하는 것

이다. 앞서 언급한 정치인의 홈페이지는 개설 2년 8개월만에 1,927만 여명이 접속하였고, 그와 관련된 소위 노사모의 홈페이지는 2000년 5월 17일 개설된 이래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동안 115만 8천 여명이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라 하겠다.

4월 22일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산원이 발표한 '2002 한국인터넷백서

년기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할 것임을 자명하게 보여 준다.

최근 '업기 김대중'이라는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어이, 조지 부시? 나야!'라는 호남 사투리로 시작돼 '거, 자네가 팔겠다'고 하는 F-15라는 자전거 말일사...'로 이어지는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의 가상 전화통화를 통해 한미간의

력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사건이다. 이제 인터넷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 깊이 침투되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인터넷은 개인정보 누설, 유해사이트 남발, 스팸메일 확산 등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독점을 불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여론의 민주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정보의 확산과 공유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만약 인터넷의 이러한 점을 무시한다면 또는 인터넷 활용에 뒤처진다면 정보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해 끝내는 소외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불교정보화 실태 조사가 시급히 요청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불교계 정보화실태조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된다고 한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불교계는 정보화사회에 걸맞는 대책과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인터넷 사이트의 숫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 및 형식을 담는 것이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본문(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인터넷 위력

에 따르면 2001년 말 현재 국내 인터넷 이용자는 2,436만 명이라고 한다. 전년보다 524만 명이 증가한 숫자다. 전년비 28%가 증가한 것이며, 유아층과 노년층의 인구를 제외하면 절대 다수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특히 7-19세의 이용자는 834만 명으로 이용율이 93.3%에 이르며 20대는 708만 명으로 이용율이 84.6%라는 점은 가까운 장래에 소년기와 청

F-15 전투기 구입문제를 신랄하게 비교하고 있는 MP3 음성파일은 전국민에게 폭소와 자괴감을 동시에 안겨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음성파일이 3월 20일 한 인터넷 음악사이트에서 처음 제작 방송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복사하여 각종 호화와 친목회 등 사이트에 유포시키고, 이를 본 사람들은 다시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메일로 보내면서 순식간에 확산된 것이다. 인터넷의 위

'종단 역점사업' 인식 시급

혜충스님 (어린이불교교육원장)

대불어 연수회에 참석해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 어린이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린이포교가 종단의 역점사업이라는 인식과 어린이포교 예산증액, 지도자에 대한 심리적, 물질적 보상 등 종단차원의 정책적, 제도적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불교의 존립과 직결되는 현안인 어린이포교에 대한 종단의 인식부족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종단의 무관심은 어린이포교 1년 예산으로 전체 예산의 0.03%인 4,700만원이 책정된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이제 어린이포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종단 차원의 어린이포교에 대한 정책성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어린이 포교가 종단의 역점사업이라는 인식을 통해 강원에서 어린이포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사연수회 지원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증액해야 한다.

또한 초등학교 7차 교육과정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범회현장에 초등학교 교과과정을 적용해야 한다. 각 학년의 교과과정에 맞는 법회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거나 어린이불교 교육연구기관을 통한 어린이법회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불교가 21세기 사회와 정신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어린이포교에 대한 사부대중의 자성과 동참이 요구되며 특히 종단의 인식전환과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를 중심으로한 교재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열린마당

어린이포교 활성화 방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혜충스님의 주제발표와 토론자들이 밝힌 어린이 포교방법론, 종단적 제도 정비,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 등 어린이포교 활성화 방안을 요약했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정여)는 1일 국제신문 강당에서 어린이포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어린이포교의 현실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1일 국제신문 강당에서 열린 어린이포교 활성화 토론회. 왼쪽부터 박용하, 이수만, 김선형, 덕진스님, 이만, 박용규, 김광호 씨.

포교기금 책정 사찰별 지원을

덕진스님 (前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회장)

현재 어린이포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가 수익사업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조계종단에서의 지원은 불가피하다. 포교기금 전담금을 책정해 사찰별로 구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법회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한정하지 말고 평일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평일날에 화원을 대신할 수 있도록 법회를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린이법회, 중등법회, 고등법회, 대학생법회가 단계별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하는 일도 시급하다.

교사대 정식인가 지도자 육성 주력

김광호 (대한불교교사대 홍보부장)

어린이포교의 활성화는 지도자 양성과 직결된다. 그러므로 어린이 지도자를 양성하는 대한불교교사대학을 발전시켜 지도자의 질적, 양적 향상에 힘써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조계종단은 전국 유일의 지도자 양성 교육기관인 대한불교교사대학을 정식인가해야

한다. 그것은 대한불교교사대학을 통해 양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현직 지도자들의 실체성과 정체성을 인정하는 일이다. 또한 어린이포교는 계몽을 저하는 물론 자연스런 초·중·고교, 군포교로 연결되는 파급효과를 갖고 있으므로 종단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경전·한자 교육등 학원기능 법회를

이만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장)

어린이포교방법론에 있어 어린이에게 맞는 다양한 방법이 세롭고 파악하게 시도되어야 한다. 어린이법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글반야심경의 경우, 뜻도 모르고 무조건 외우게 함으로써 오히려 거부감을 줄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에게 맞는 경전 연구나 한자 교육을 병행한 경전

공부 등의 방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한자나 기타 다른 공부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학원기능의 법회는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어 법회참석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린이지도자에 대한 사회적 대우나 위상이 높아지도록 사찰업무의 분담과 전문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온가족 참석 프로그램 개발해야

김선형 (대전·충남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사무국장)

순수한 신심으로 어린이법회에 현신하고 있는 많은 지도자들을 인정해야 한다. 열악한 상황속에서 어린이법회를 이끌어온 장본인들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린이법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도자들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가장 시급한 것은 법회를 진행할 지도자들의 훈련이다.

또 하나는 모든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일요일법회가 일반화되어 전가족이 함께 사찰에 오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법회프로그램이 빠른 시일내에 개발되어야 한다.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생각하는 포교아람로 자연스런 어린이포교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불자의 생각

공양계

94명이 동점한 붓다뉴스 네티즌 설문에서 36명(38%)의 불자들이 식사를 할때 공양계를 외우지 않고 마음으로만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응



식사때 '마음으로만 감사' 38%

답했다. 또한 29명(31%)은 간단하게 합장을 한다. 19명(20%)은 별 생각없이 식사를 한다. 10명(11%)은 공양계를 외우며 공양의 바른 의미를 되새긴다고 답변했다.

공양계 의식을 얼마나 잘 실천하는지는 질문에는 37명(39%)이 가끔 한다. 22명(23%)이 때때로 한다. 25(25%)명이 절에서만 한다. 7명(7%)이 주변 사람들이 하면 함께 한다. 6명(6%)이 기타라고 밝혔다.

임태기 기자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는 책

서용근스님 연의

차별없는 참사람 출판법회



임제스님 말씀 『차별없는 참사람』, 이 책을 보라. 이 책은 나의 존이요 나의 생명이다.

인류여! 인간을 존중하라.

우리 인간은 사랑분별망식이 다 떨어진 청정한 마음이다. 우리 인간은 부처님 모습을 본래 갖춘 절대적 차별없는 참사람이다.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분별하고 집착하지 말라. 분별과 집착은 고통과 지옥, 중생과 윤회에 들어가 끔찍한 일을 범하게 된다.

우리 인간은 일장예배를 받고 일장예배를 해야 할 사람들뿐이다.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이 절대적 주체로서 지금 현재 깨달음을 회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해탈열반인 것이다. 임제스님 말씀 『차별없는 참사람』은 오늘의 인류에게 해와 달 천만 개 걸어 놓은 으뜸가는 지혜광명이라 하겠다.

※ 법회에 참석하시는 분에게 책 1권을 법보시합니다.

법어 : 일산 임조 대선사

차별없는 참사람 운동본부/일산임조선사/차별없는 참사람 삼보제자불자회

출판기념법회 : 2546년 양력 5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차별없는 참사람 출판사/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09번지 전화 031)903-9121

아미타불을 친견, 직접 극락을 다녀오다!

중국 관정 큰스님의 6년 5개월 극락체험기



극락은 있다

석관정 지음 | 대주 옮김 | 신국판 | 정가 8,000원



"실제로 내가 서방극락세계에 다녀온 시간은 대략 스무시간 정도라고 생각되었는데, 다시 인간세상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6년 5개월 지나있었다"

본문 중에서-

극락세계 체험의 내력 / 도솔천에서 스승 허운화상과 상봉
미륵보살의 설법 / 아미타불을 친견 / 하승·중승·상승연화
아미타불의 무족 / 인간세계로 돌아오다.....

관정 큰스님은 현재 중국 최장수 선유현 직수암사에 주석하시면서 미국·캐나다 한국 등 전세계 21개국을 순회하며 법을 전하고 있다.

좋은 책 좋은 배움을 만드세요

서울시 동구 인사동 159 갤러리상 405호 ☎ 02)722-0292-3

붓다의마음